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의복행동연구

A Study on the Clothing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Connection with Sex-Role Identity and Home Enviornments

전경란
공주대학교 가정교육과

Jeon, Kyoung Ra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ollege of Teacher, Kong-Ju National Univ.

Abstract

Clothing is considered as a means of self-projection in the childhood and children show clear preference on their own favorite clothing on which their latent identity is reflected. Changing sex-role identity, in particular, in the modern complex society specially affects the clothing behavior of childr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lothing behavior of children in conjunction with sex-role identity and home environment variables. This study will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on the clothing behavior in the childhood and be of help in selecting appropriate clothing in accordance with the variation of sex-role identity.

Necessary information for this study was obtained through a questionnaire. 'Bem sex-role identity inventory' was us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x-role identity and the clothing behavior was studied in conjunction with the factors of conformity, dependence, acsthetics and interest.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are composed of three hundred male and femal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percentage(%), mean value(M), standard deviation(SD)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calculated and t-test, χ^2 -test,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performed.

The results form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Sex-role identity shows a little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order of a birth and standard of living. This small difference is shown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2. In clothing behavior in connection with the sex-role identity, statistically significant trend was not found in typical sex-role identity group. However, clothing behavior in modernistic sex-role identity group exhibit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the factors of dependence, aesthetics and interest at the level of $P < .001$.

3. As concerns the clothing behavior in connection with gender, boy students show statistically more significant tendency in aesthetics and interest than girls do. However, boy students show statistically more significant tendency in aesthetics than girls do in connection with the standard of living.

Although the clothing behavior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parents education, mother's age and existence of mother's job shows a little difference in mean values, statistically significant trend was not detected.

4. Clothing behavior of the children shows a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5. Through 3-dimensional variables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re is no mutual interaction between gender, sex-role identity and standard of living on the clothing behavior. The results from MCA supplementary analysis reveal that there is difference according to the gender, sex-role identity and standard of living.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복은 최초에는 의미를 가지지 않았으나 차츰 시대가 변화되어 감에 따라 문화적으로 정의되어지고 외모의 한 요소로 인간에게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 개인의 내면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무언의 단서가 되었다.

우리가 의복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의복의 역사와 착용되는 상황에 따라 의복의 메시지를 적절하게 전달하는데 있다.

신화적인 최초의 의복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명백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왜 남성성, 여성성(전통적인 성역할)으로 구별되어 지는지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런 모든 이유 때문에 의복이 사회의 관례에 입각해 남성다움, 여성다움을 익히게 하는 방법중에 가장 강력한 것처럼 작용한다. 더구나 현대사회의 의복착용 형태는 매우 다양해서 양성성과 미분화의 근대적인 성역할 정체감으로 변화하는 기현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이같은 변화는 성역할에 대한 의복착용이 더 뚜렷해 지는 시기인 아동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정환경 배경 변인에 의해서도 성역할 정체감 및 의복행동은 영향을 받을 것

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동안 수행되었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는 성역할 태도를 관련변인으로 조금 이루어졌을 뿐 가정환경과의 관계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성역할 정체감 및 가정환경 배경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을 알아봄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아동기의 의복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며, 합리적인 의생활 방향을 제시하므로 이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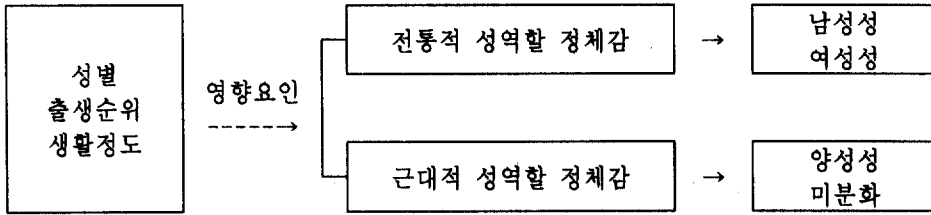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아동기의 성역할 정체감이 가정환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본다.
- 2) 의복행동이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 3) 의복행동이 가정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내용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1) 성역할 정체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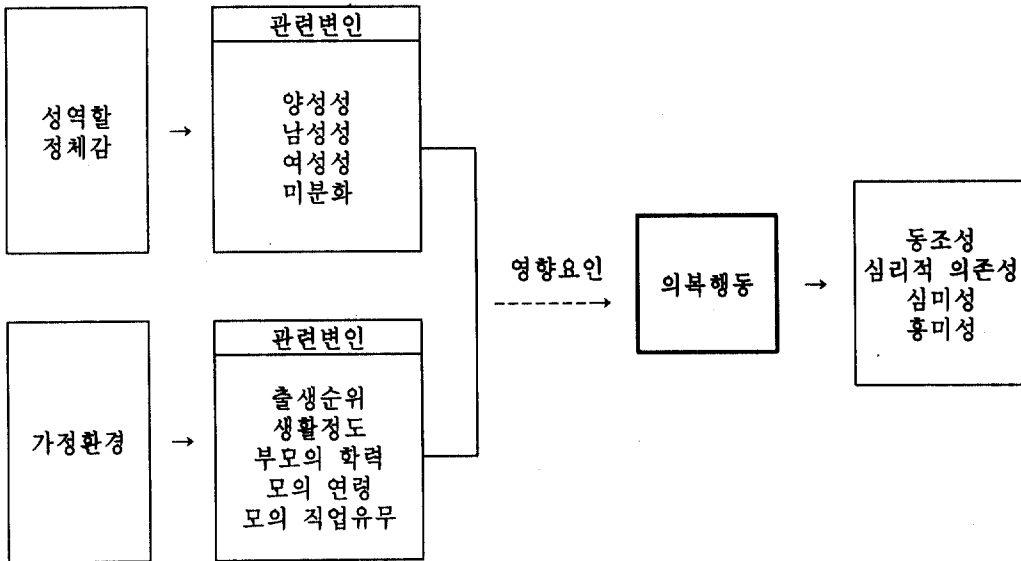


<그림 1> 성역할 정체감 유형

<그림 1> 은 성역할에 관련된 두차원을

기준으로 성역할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2) 의복행동 분석



<그림 2> 성역할 정체감 및 가정환경에 의해서 설명되는 의복행동 행로도식

<그림 2> 는 아동기의 의복행동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II. 연구가설

1. 연구가설

의복행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아동기의 성역할 정체감 및 가정환경 배경변인에 따른

가설 1. 성역할 정체감은 성별, 출생순위, 생활수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의복행동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의복행동은 성별과 가정환경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의복행동은 변인 상호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전 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3교를 선정하여 5, 6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소속한 6개 학급을 무선표집하였다. 질문지는 학교에서 배부하여 조사자가 응답요령을 설명한 후 1995년 4월 10일에 50명을 대상으로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작성된 질문지를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2차 조사는 1995년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아동이 부모님과 함께 응답케 하였다. 총 358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질문지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58부를 제외한 300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성역할 검사

성역할 검사의 측정은 Bem의 Short form, BSRI (Bem Sex Role Inventory)를 질문지를 초등학교 아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Short Form BSRI의 채점방법은 30개의 문항중에서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만 점수화 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나의 성격과 같다”, “가끔 나의 성격과 같다”, “나의 성격과 같지 않다”의 1점에서 3점까지 3점 Likert type 척도에 따라 점수화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득점의 합이 남성성 문항의 점수가 높고 여성성 점수가 낮으면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높고 남성성 점수가 낮으면 여성성, 득점의 합이 남성성, 여성성 점수가 모두 중앙치보다 낮으면 미분화, 높으면 양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범주화하여 점수를 주어 분류 조사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성역할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를 보는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는데 α 값이 .77로 나타나 이척도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2) 의복행동 검사

아동의 의복행동 변인은 유명미(1988), 김연주(1992), 이은미(1984), 원선주(1989)등에 의

해 선행연구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변인에 따른 문항은 Likert type의 5단계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의복 동조성 4문항, 의복 심리적 의존성 5문항, 의복 심미성 4문항, 의복 흥미성 4문항으로 총 17문항이다.

측정도구는 각 의복행동별 (7가지)로 5문항씩 총 35문항으로 50명에게 예비조사를 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64이하인 것은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제외하고 4가지 의복행동에 관한 총 17문항만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문항의 배열은 의복의 동조성 · 심리적 의존성 · 심미성 · 흥미성의 순으로 반복되도록 배열하였다. 의복행동의 채점은 각 행동별로 문항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주어 각 문항의 점수 합계로 높고 낮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s for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자료분석은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 Pearson의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관계를 조사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변량분석(F검증), χ^2 검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의도는 $P < .05$ 수준)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대전 광역시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학동기(학령기) 아동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된 바와같이,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은 여자아동이 55%로 남자아동보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변 수 명	N	%	변 수 명	N	%
아동성별	남	135	45.0	출생순위	
				외동아	21
녀	165	55.0	첫째	169	56.3
			중간	93	31.0
			막내	17	5.7
아동연령(세)			아버지학력		
10~11	60	20.0	중졸이하	42	14.0
12~13	238	79.3	고졸	86	28.7
14세이상	2	0.7	전문대졸	27	9.0
			4년제졸	68	22.7
			대학원이상	77	25.7
아버지연령(세)			어머니학력		
35세이하	10	3.3	중졸이하	55	18.3
36~40	108	36.0	고졸	121	40.3
41~45	164	54.6	전문대졸	22	7.3
46세이상	18	6	4년제졸	86	28.7
			대학원이상	16	5.3
어머니연령(세)			아버지직업		
35세이하	34	11.3	이사관이상공무원	52	17.3
36~40	197	65.7	사무관이상공무원	20	6.7
41~45	63	21.0	일반공무원	50	16.7
46세이상	6	2.0	경찰관, 평사원	80	26.7
			기능공, 숙련공	83	27.7
			일반노무자	14	4.7
			무직	1	3
생활수준			어머니직업		
상	35	11.7	이사관이상공무원	2	0.7
상하	45	15.0	사무관이상공무원	8	2.7
중	99	33.0	일반공무원	10	3.3
중하	76	25.3	서비스업, 평사원	11	3.7
하	19	6.3	기능공, 숙련공	44	14.7
상하	20	6.7	일반노무자	11	3.7
하	6	2.0	무직	214	71.3
전 체	300	100	전 체	300	100

10%가 많았다. 연령은 남·녀 아동 모두 12~13세가 79.3%로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부모의 연령분포는 아버지의 경우 41~45세가 54.6%로서 40대가 많았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36~40세가 65.7%로 30대 후반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연령이 5세이상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은 중류층이 64.6%로 아주 많은 수를 차지했다.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56.3%로 가장 높았으나 막내는 5.7%로 아주 낮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의 경우 전문대졸 이상이 57.4%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경우에는 41.3%로 나타나 아버지의 학력수준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기능공/숙련공이 27.7%였고 그 다음이 경찰관/평사원 26.7%, 이사관이상 전문직 공무원이 17.3%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대다수인 71.3%가 직업을 갖지 않고 있었으며, 취업을 한 경우 대부분 기능공/숙련공(14.7%)과 서비스업/평사원/일반노무자(3.7%), 일반공무원(3.3%)에 종사하였다.

2. 연구가설의 검증

1) 성역할 정체감의 연구가설의 검증

가설 1과 관련하여, '성역할 정체감이 성별, 출생순위, 생활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백분율과 χ^2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을 분석한 결과 남자아동은 남성성, 양성성, 미분화가 각각 같은 수준(26.6%)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성은 20.2%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아동은

여성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29.7%) 남성성은 가장 낮게 (17.5%) 나타나 성별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은 다르게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성역할 정체감이 차이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 결과도 일치하였다. 외동일때(7.0%)와 막내일때(5.6%)는 성역할 정체감이 덜 유형화 된 것을 보여 주었다. 성역할 정체감은 외동일때는 여성성과 미분화가, 첫째일때는 양성성, 중간일때는 미분화, 막내일때는 양성성이 다소 높은 점수로 미미한 차이를 보였고 첫째와 막내는 다같이 양성성 점수가 높아 이숙(1981)의 연구결과에서 막이가 막내보다 양성성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보고와는 어느정도 일치하였다.

생활수준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은 상류층에서는 미분화 상태가 많았고 특히 상-상의 경우에 더 많았다(6.0%). 그러나 중류층에서는 중-상의 경우 여성성과 양성성이 높았고 남성성과 미분화는 조금씩 낮게 나타났다. 생활수준이 하류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성성-여성성-미분화-남성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때 성역할 정체감은 생활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다소의 차이는 나타났다.

2)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의 연구 가설의 검증

가설 2와 관련하여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의복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 집단과 근대적인 성역할 정체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표 3>의 심리적 의존성에서는 남녀 아동모두 P <.01 수준에서 유의적이었고 심미성은 P <.001 수준에서 남녀 아동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흥미성은 여자아동인 경우만 P <.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동조성은 남녀 모두 흥미성에서는 남아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은 과거의 개념으로 남성다운 남성, 여성다운 여성으로 분류하여 의복행동을 알아본 것으로 남성적 집단에서는 동조성이 높게 심리적 의존성이 낮게 나타났다고 심미성과 흥미성은 양성모두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통적인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생활수준에 따른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정체감	생활수준	상-상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하	x ² 값
	N (%)	N (%)	N (%)	N (%)	N (%)	N (%)	N (%)		
양성성	3 (1.0)	13 (4.3)	24 (8.0)	22 (7.3)	5 (1.7)	8 (2.7)	3 (1.0)	κ ² =29.11 df=18 p=.06118	
남성성	6 (2.0)	11 (3.7)	22 (7.3)	20 (6.7)	3 (1.0)	3 (1.0)	1 (0.3)		
여성성	8 (2.7)	8 (2.7)	31 (10.3)	21 (7.0)	4 (1.3)	4 (1.3)	2 (0.7)		
미분화	18 (6.0)	13 (4.3)	22 (7.3)	13 (4.3)	5 (1.7)	5 (1.7)	1 (0.3)		

<표 3>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검증

의복행동	성별	성역할정체감 M S.D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F 값
		M	S.D	M	S.D	M	S.D	M	S.D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동조성	남	13.78	2.64	15.11	3.44	13.43	3.65	14.61	3.17	1.88		
	녀	14.78	3.23	14.28	2.81	14.33	3.27	14.41	2.90			
심리적 의존성	남	14.51	3.73	12.76	2.70	13.11	3.00	11.85	3.19	4.25**		
	녀	13.63	3.18	12.45	2.97	12.57	3.52	11.02	2.69			
심미성	남	11.84	3.07	10.68	3.31	10.89	2.70	8.64	3.32	6.33***		
	녀	12.22	2.78	9.17	3.07	9.57	3.04	7.48	2.47			
흥미성	남	14.51	3.02	13.89	3.03	13.57	3.30	12.58	4.39	1.89		
	녀	14.76	2.89	11.34	4.55	12.18	3.62	10.04	3.41			

p<.01 *<.001

<표 4> 근대적인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검증

의복행동	성역할정체감		양성성 집단	미분화 집단	t 값
	M	S.D			
동조성	M	14.31	14.49	-3.9	
	S.D	2.99	3.00		
심리적 의존성	M	14.05	11.37	5.26***	
	S.D	3.46	2.92		
심미성	M	12.04	7.96	8.80***	
	S.D	2.91	2.90		
흥미성	M	14.64	11.10	6.29***	
	S.D	2.94	4.02		

*** p<.001

<표 4>는 근대적인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양성성 집단은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흥미성에서 P <.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양성성은 사회의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중 여성적 특성과 남성적 특성의 바람직한 것만이 결합하여 공존하는 것으로 기존의 성역할에 매이지 않는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부드럽고 적응적인 성격을 의미하는데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것은 양성성이 독립성이 높다는 이론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간주된다. 미분화 집단은 성역할 태도가 불확실한것으로 의복행동에서 동조성이 평균치로 비교해 볼때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3)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가설의 검증

가설3과 관련하여 의복행동은 성별과 가정환경 배경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t검증과 F검증으로 알아보았다.

<표 5> 성별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검증

의복행동	성별				t 값
	남 (N=135)		여 (N=165)		
	M	S.D	M	S.D	
동조성	14.27	3.25	14.45	3.06	0.49
심리적 의존성	13.09	3.30	12.38	3.24	1.86
심미성	10.54	3.31	9.58	3.49	2.52**
흥미성	13.67	3.50	12.08	3.95	3.66***

** P< .01 ***P<.001

<표 5>는 성별에 따라 아동의 의복행동을 t검증한 결과이다. 동조성과 심리적 의존성은 남녀 아동간에 평균적으로 미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연주(1992)의 국민학교 아동의 의복행동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의존성은 성별에 따라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아동이 남자아동 보다 평균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심미성과 흥미성은 각각 P<.01과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심미성·흥미성에 대하여 더욱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는 의복행동의 하위요인중 흥미성에 더욱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른 의복행동을 분석한 결과 동조성은 막내-첫째-중간-외동아의 순으로, 심리적 의존성은 외동아-첫째-중간-막내의 순으로 심미성은 막내-외동아-첫째-중간의 순으로 흥미성은 외동아-중간-막내-첫째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에 따른 의복행동은 동조성과 심미성은 막내가, 심리적 의존성과 흥미성은 외동아일때 평균점수는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아동기에는 출생순위에 큰차이 없이 동료집단과 일치된 의복착용이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Hurlock(1974)의 연구에서 가장 인기있는 아동은 또래집단과 비슷하게 옷을 입는 아동이라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다.

생활수준에 따라 아동의 의복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 6> 과 같다. 동조성과 심리적 의존성은 생활수준이 상류층일 때 높게 나타났고 심미성은 생활수준이 하류층일 때 가장 높았으며 P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생활수준이 의복행동의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흥미성은 중류층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분석한 생활수준에 따른 의복행동은 Ryan에 의해서 보고된 의복행동에 관한 내용중 초라한 의복을 착용하였을 때 집에 가고 싶거나 심리적 위축감과 타인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아동의 심리적인 변화가 있다는 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본 연구도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아동의 생활수준이 하류층인

경우 의복행동에서 심미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해석된다.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의복행동 결과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취업현황은 41%로 나타났다.

<표 6> 생활수준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검증

생활수준 의복행동	상-상(n=35)		상-하(n=45)		중-상(n=99)		중-중(n=76)		중-하(n=19)		하-상(n=20)		하-하(n=6)		F 값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동조성	14.51	3.95	15.22	2.95	14.59	2.74	14.01	3.29	13.84	3.45	13.30	3.02	13.50	2.17	1.368
심리적인존성	11.69	3.00	13.24	3.38	12.38	3.22	13.20	3.22	13.05	3.94	12.50	3.04	13.00	2.00	1.271
심미성	8.69	2.81	9.76	3.37	9.86	3.48	10.68	3.23	9.47	3.13	10.75	3.51	12.83	1.72	2.556*
흥미성	12.23	3.81	13.16	4.15	12.73	4.25	13.13	3.41	12.50	3.62	12.50	3.62	12.83	3.97	.362

* P<.05

부모의 교육수준과 아동의 의복행동과의 관계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평균점을 비교해볼 때 F(5,294)=1.766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김정호(1978)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복선택에서 미적인 면을 중시한다는 연구보고서와 어느 정도 유사하였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이 조금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미성이 평균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의복행동에서 심미성은 학력간에 정적인 관계는 없었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조성이 높았는데 동조성 문항의 내용으로 볼 때 친구의 옷과 다르면 걱정을 하거나, 새옷이라고 입지 않으려 하지만, 친구들이 입는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아동의 의복행동이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영향이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아동의 의복행동은 전혀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아동의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에 미치는 의복행동은 좀더 연구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평균치를 비교해볼 때 어머니의 연령이 30대 후반인 경우 동조성이 높게 나타났고 40대 후반인 경우는 흥미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 의복행동에 미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아동의 의복행동이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남녀 아동 모두 평균차이가 있고 점수분포에 따른 의복행동 변인의 순위도 같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4) 의복행동 변인에 대한 연구가설의 검증
가설4와 관련하여 아동의 의복행동변인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와 삼원변량분석한 결과는 <표 7>, <표 8>와 같다.

<표 7> 의복행동 변인의 상호 상관관계

의복행동	동조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흥미성
동조성	1.0000			
심리적 의존성	.236**	1.0000		
심미성	.177*	.536**	1.0000	
흥미성	.328**	.437**	.564**	1.0000

*p<.05 **p<.01

의복행동 변인상호간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그 결과 아동의 의복행동 변인간에는 다음과 같은 상관을 보였다. 동조성은 심리적 의존성과 흥미성과는 아주 유의적인 상관을 나타냈고 (P <.01) 심미성도 P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이 있었다.

의복의 동조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흥미성-심미성의 순으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아동은 심미성과 흥미성에 있어서도 유의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또한 심미성이 높은 학생은 의복에 대한 흥미성도 높게 나타나 의복행동 변인 상호간에 $P < .01$ 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표 8>에서 볼때 아동의 의복행동은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고 2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그러나 심리적 의존성은 성역할 정체감에서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고 심미성은 성역할 정체감 ($P < .01$)과 생활수준 ($P < .001$)에서 아주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복의 흥미성도 성역할 정체감($P < .001$)과 생활수준($P < .001$)에서 아주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에 대한 아동의 흥미성이 높으면 심미성에도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CA보조분석 결과에 의한 각 독립변인 집단을 평균값 차이에 의하여 비교하면 남자 아동은 의복행동변인중 흥미성이 높았으나(평균차 .88) 동조성에서는 낮은편(평균차 -1.0)이었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는 의복 동조성에서는 남성성이 가장 높고(평균차 .37)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흥미성은 양성성이 각각 평균차 1.35, 2.03, 1.84로 높고 특히 의복의 심미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의복의 동조성,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은 성역할 정체감이 미분화인 경우에 가장 낮게 나타났고 흥미성은 남성성인 경우 낮은편이었다(평균차 -.02). 성역할 정체감이 가장 낮고 의복행동도 낮은 것은 성역할 정체감이 아직 미분화인 경우에 심미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는 의복행동이 상류층에서 각각 높았으며 하류층에서 낮게 나타났다. eta계수를 비교해 보면 의복행동은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가 eta값 0.8로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성별, 사회계층의 순이었다. 의복행동에 대한 주된 효과를 볼때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흥미성은 각각 $P <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표 8> 의복행동 변인에 대한 성별, 성역할 정체감 및 생활수준에 의한 삼원 변량분석과 MCA 보조분석

분석 방법	변량원	DF	동조성		심미성		흥미성	
			F	F	F	F		
삼원 변량 분석	주효과	10	1.04	3.74**	8.67***	5.34***		
	성	1	0.38	3.41	6.86**	13.30		
	성역할정체감	3	0.68	8.26***	19.54***	11.68***		
	생활수준	6	1.30	0.92	1.14	0.32		
	A X B	3	0.15	1.09	1.32	1.19		
	A X C	2	0.41	0.49	0.76	0.63		
A X B X C	18	0.74	0.44	1.49	1.70			
집단내(오차)	89							
MCA	변인	속성	N	평균 의 차 ETA	평균 의 차 ETA	평균 의 차 ETA	평균 의 차 ETA	
	성별	남	135	-1.0	.39	.53	.88	
	여	165	0.8	-.32	-.43	-.72		
				0.3	.11	.14	.21	
MCA	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78	-.7	1.35	2.03	1.84	
		남성성	66	.37	-.8	-.01	-.02	
		여성성	77	-.37	-.07	-.04	-.11	
		미분화	79	.12	-1.33	-2.05	-.17	
				.8	.30	.44	.34	
	생활 수준	상 상	35	.14	-1.01	-1.32	-.57	
하		4	.85	.54	-1.25	.36		
중 상		99	.21	-.32	-1.15	-.07		
중		76	-.36	.56	.67	.33		
하		19	-.53	.35	-.54	-.48		
하 상		20	-1.07	-.20	.74	-.30		
	하	6	-.87	.30	.22	-.04		
			.17	.16	.22	.09		

** $P < .01$ *** $P < .001$
MCA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라 의복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대전광역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역할 정체감은 성별, 출생순위,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1)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는 남성성-양성성-미분화-여성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아는 여성성-미분화-양성성-남성성의 순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2)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의동일때와 막내일때는 성역할 정체감이 덜 유형화 된 것을 보여 주었다.

3)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상류층은 미분화 상태가 많았고 하류층은 양성성이 많아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2. 성역할 정체감은 전형적인 성역할 집단과 근대적인 성역할 집단으로 크게 구분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1) 전형적인 성역할 집단(남성성, 여성성)은 남성성 집단에서는 동조성이 높게, 심리적 의존성이 낮게 나타났고, 심미성과 흥미성은 양성 모두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근대적인 성역할 집단(양성성, 미분화)은 변화하는 성역할 집단으로 의복행동이 심리적 의존성이거나 심미성, 흥미성은 $P < .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적이었다.

3. 의복행동은 성별과 가정환경 배경 변인에 따라 조사 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1)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아동간에 심미성과 흥미성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2) 출생순위는 의복행동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생활수준에서는 상류층은 동조성과 심리적 의존성이, 하류층은 심미성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4)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연령과 직업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아동의 의복행동 변인 상호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1) 동조성은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흥미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2) 심리적 의존성은 심미성, 흥미성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3) 심미성은 흥미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5. 의복행동 변인에 대한 성별, 성역할 정

체감, 생활수준에 의한 삼원변량분석결과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고 MCA 보조분석결과 성별, 성역할 정체감,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1) 삼원변량 분석결과 주된 효과는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흥미성은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변인에 따라서는 성별의 차이는 심미성과 흥미성이 성역할 정체감은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흥미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생활수준의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2) MCA 보조분석결과 평균차는 성별의 차이는 흥미성은 높고 동조성은 낮게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차이는 동조성은 남성성이, 심미성은 양성성이 가장 높았고 미분화는 아주 낮았다. 생활수준의 차이는 상류층에서는 높았고 하류층에서는 낮았다.

3) eta 계수를 비교하면 성역할 정체감, 성별, 사회계층의 순으로 다소 높은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근거로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의 변화,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의복행동을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아동기의 건전한 의복착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아동복이 성역할 변화추이에 따라 제작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강은숙,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위와 사회계층간의 상관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2. 고애란·김양진,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20, No. 4, 1996.
3. 고은기, 학령기 아동의 의복행동과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4. 권혜연,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영향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

- 위논문, 1996.
5. 길미령, 부부의 공동의사 결정시 내재된 갈등과 갈등관리 형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6. 김매자, 취학전 아동의 의복기호와 의복행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7. 김순화, 교복 착용이 학생의 자아개념과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8. 김연주, 국민학교 아동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인지도와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9. 김원숙, 의복행동과 자아개념과의 상관관계 연구 (청년기 전후 여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10. 문영애, 아동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와 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Vol. 15. No. 2, 1991.
 11. 손정락, 성격심리학, 교육과학사, 1996.
 12. 유영미, 아동의 사회성 및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국민학교 4·5·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13. 이명희, 한국과 미국 남녀 대학생의 의복 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17, No.3, 1993.
 14. 이병인, 가정환경, 성역할 정체감, 성취동기와 직업포부수준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15. 이선재, 여자 중·고등학교학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6, No. 1, 1982.
 16. 이선재,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의복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6, No.1, 1982.
 17. 이숙, 학령전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18. 이은미,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19. 이인자, 복식사회심리학, 수학사, 1987.
 20. 이은주,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개인의 의복행동과의 관계(서울시내의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21. 이정연, 남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22. 이행옥, 부모의 성역할 정체감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3. 이형실,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임윤정,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구매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주택구매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5. 원선주, 학령기 아동의 성역할 정체감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26. 정승혜,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27. 조정문, 결혼 후 여성의 취업단절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제5권 제1호, 1994.
 28. 지윤영, 우울수준과 의복행동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중년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29. 최자령, 취업주부의 역할관리 전략과 역할갈등 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0. Claudia Brush Kidwell and Valerie Steele, Men and Wome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89.
 31. E.A.Kelley, C.W.Daigle, R.S. Lafleur, and L.H.Wilson, Adolescent Dress and Social Particip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 3, 1974.
 32. E.B.Hurlock, Personality Development, New York : Mc Graw-Hill, Inc, 1974.
 33. Jones, L.M. and J.L. McBride, Sex-role stereotyping in children as A Function of Maternal Employm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1, 1980.

34. M.S. Ryan, op. cit, 1966.
35. Meyer.B, 'The Development of Girls' Sex-role Attitudes, Child Development, 51, 1980.
36. Munsinger.H, and A. Rabin, A Family study of Gender Identification, Child development, 49, 1978.